

**히말라야 8000m급 14좌 완등 도전 '아름다운 동행'**

‘하얀 산’을 향한 담대한 도전이 다시 시작된다. 광주·전남 학생산악연맹 출신으로는 처음 ‘히말라야 8000m급 14좌 완등’에 도전하는 중견 산악인 김미곤(44·한국도로공사산악팀·서영대OB) 대장과 장애인 최초로 세계 7대륙 최고봉을 모두 오른 데 이어 히말라야 14좌에 도전 중인 ‘열 손가락 없는 산악인’ 김홍빈(52·트레스타 홍보이사) 대장이 새로이 배낭을 꾸렸다. 김미곤 대장은 지난달 1일 안나푸르나(Annapurna·8091m) 정상을 밟아 히말라야 8000m급 14좌 중 13좌를 올랐다. 이번 원정은 ‘마지막 8000m’를 향한 발걸음이다. 김홍빈 대장은 14좌 중 9좌를 등정하고 10번째 고지대를 향해 피켓을 들었다. 이들의 도전 대상은 히말라야산맥 서쪽 파키스탄에 위



치한 낭가파르밧(Nanga Parbat·8125m). 우르드어로 ‘벌거벗은 산’ ‘산중의 왕’(Diamir)이라는 뜻으로, 셰르파들은 ‘킬러 마운틴’(Killer Mountain)이라고도 부른다. 한국에서는 첫 도전 이후 9년만인 지난 1992년 광주우암산악회 김주현 대원이 경남함동팀과 함께 처음으로 정상에 올랐다. 광주·전남 산악인들에게 남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이유다. 두 사람은 2006년 가셔브롬 II (8035m)를 시작으로 에베레스트(8850m)와 다울라기리(8167m)에 이어 ‘하늘의 절대군주’ K2(8611m)까지 정상을 함께 밟은 자일(Seil) 파트너이기도 하다. ‘자일의 정’으로 숭한 극한상황과 역경을 함께 극복해 온 ‘아름다운 동행’은 이번 원정에서도 계속된다.

**‘산 중의 왕’ 향한 담대한 도전**

2016 낭가파르밧 아시아 평화원정대 김미곤 대장

광주·전남 학산 첫 ‘그랜드슬램’ 눈앞 ‘마지막 8000m’ 등정 위해 22일 출국

김미곤 대장이 이끄는 원정대는 광주지역 산악인 이경주(39·조선이공대OB)·김진현(25·전남대산악회) 대원 뿐만 아니라 대만 산악인 2명과 중국 산악인 1명도 함께 한다. 대만 대원들은 지난 2013년 가셔브롬 I (8068m) 등반 때 7700m 지점에서 추락해 중상을 입은 것을 김 대장이 셰르파 2명과 장비를 올려보내 구조해줬고, 중국 대원은 당시 가셔브롬 I 과 지난달 1일 안나푸르나 정상을 함께 밟은 인연이 있다. ‘2016 낭가파르밧 아시아 평화원정대’라는 명칭을 붙이게 된 배경이다. 모두 7명으로 구성된 원정대는 오는 22일 출국해 파키스탄 북부 펀잡히말라야의 낭가파르밧을 두 달 동안 등반한다. 세미 알파인 스타일의 서벽 킨스호퍼 루트에 4개의 전진 캠프를 구축한 뒤 오는 7월 말~8월 초 사이 정상 공격을 시도할 계획이다. 김홍빈 대장팀과는 파키스탄 현지에서 만나 합동 등반에 나선다. 이번 원정은 한국도로공사가 주최하고 블랙아크가 후원하며 김학송 한국도로공사 사장과 강대선 블랙아크 회장이 단장을 맡았다. 김미곤 대장이 등정에 성공하면 광주·전남 학생산악연맹 출신으로는 첫 ‘산악 그랜드슬램(Grand-slammer)’가 탄생한다. 2007년 한국 최초로 에베레스트·로체(8516m) 연속 등정에 성공해 ‘철인(鐵人)’이라는 별명을 얻었으며, 지난해에는 한국 산악계의 위상을 높인 공로로 ‘대한민국 산악대상’을 받기도 했다. 한국도로공사 산악팀은 국내 단일 산악회로는 최초로 히말라야 8000m급 14좌를 모두 올르는 기록을 작성하게 된다. 김미곤 대장은 “지난 봄 안나푸르나 등반 때는 혼자 정상을 밟아 아쉬웠는데 이번에는 가능한 한 모든 동료 대원들과 등정하고 싶다”며 “충추한 팀워크로 성공적인 등반을 하는데 목표를 둘 것”이라고 밝혔다.



2016 낭가파르밧 원정대 김홍빈 대장

장애인 세계 최초... 10번째 고지 향한 여정 10일 발대식·20일 출국... 7월말 정상 도전



‘희망 전도사’ 김홍빈 대장이 이끄는 원정대는 나정희(50·금호타이어)·서경재(52·정우종합유통 대표) 등 4명으로 짜였다. (사)광주전남비전21이 주최하고 광주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며 정원주 중흥건설 대표가 단장을, 장병완 국회의원·강행욱 변호사·김보곤 디케이이산업 회장이 고문을, 피길연 광주시체육회 체육시설본부장이 추진위원장을 맡았다. 원정대는 오는 10일 오후 5시30분 광주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발대식을 개최한다. 이어 오는 20일 파키스탄 현지로 출국해 낭가파르밧 서벽 킨스호퍼 루트에 4개의 캠프를 세운 뒤 7월 말경 정상에 도전한다. 김 대장은 지난 1991년 북미 최고봉인 데날리(Denali·6194m) 단독 등반에 나섰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해 열 손가락을 잃었다. 하지만 포기 없었다. 불굴의 의지로 장애를 극복하고 1997년 유럽 엘브루스(5642m)부터 2009년 남극 빈슨매시프(4897m)까지 12년에 걸쳐 세계 7개 대륙 최고봉을 올랐다. 이어 8000m급 14좌로 눈을 돌려 에베레스트, K2, 가셔브롬 II, 시사파마, 마칼루, 다울라기리, 조오유, 칸첸중가, 마나슬루까지 9개 봉을 등정해 ‘도전과 희망의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2013년 대한민국 산악상 고산등반상과 2014년을 빛낸 도전 한국인 스포츠부문 대상, 한술산악상 등을 수상했으며 전국장애인 동계체전 남자 알파인스키에서 4년째 2관왕을 차지했다. 광주시 빛고를 홍보대사로서 지리산 둘레길 중주, 장애인과 함께 하는 무릎길 중주를 통해 지리산, 무등산 알리기에 앞장서고 있다. 김 대장은 “‘단 1%의 가능성만 있어도 천 번을 시도한다’는 각오로 장애인과 청소년들에게 도전정신을 심어주고 ‘꿈은 이루어진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다”고 밝혔다. 내년에는 장애인들과 함께 로체(8516m) 등반을 계획하고 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쿠바를 방문 중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5일(현지시간) 칸벤션 궁에서 브루노 로드리게스 쿠바 외교장관과 회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쿠바 해빙 물꼬 트나**

윤병세-로드리게스 외교장관 회담...관계 정상화 속도

우리 외교수장으로서 처음으로 쿠바를 방문 중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5일(현지시간) 브루노 로드리게스 쿠바 외교장관과 회담했다. 한·쿠바 외교장관 회담은 아바나 시내의 쿠바 정부 건물인 ‘컨벤션 궁’에서 75분(현지시간) 브루노 로드리게스 쿠바 외교장관과 회담했다. 윤 장관은 회담 후 외교부 공동취재단에게 “우호적이고 진지하고 핵심타회한(분위) 가운데 회담했다”면서 “양국이 가진 잠재력을 더욱 구체화할 시점이 다가왔다는 점을 제가 강조했고,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우리 측의 생각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잠재력을 구체화할 시점’이라는 언급은 수교 메시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윤 장관은 “(관계개선을 위한) 이심전심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느꼈다. 다양한 후속 협의를 생각하고 있다”면서 “미래에 대한 비전과 방향성, 로드맵을 갖고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메탄가스 11억 수익·온실가스 감축**

광주 양과동 쓰레기매립장 ‘일거양득’

광주시가 쓰레기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활용해 전력을 만들어 팔고 온실가스도 줄이는 ‘일거양득’ 효과를 거뒀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2010년부터 양과동 광역위생매립장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자원화해 전력을 생산·판매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다. 아울러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민간사업자인 파나스에너지(주)와의 협약을 통해 매립가스(LFG) 자원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는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하루 평균 1만5000m³의 메탄가스를 이용해 2011년부터 연간 4000MWh 가량의 전력을 생산, 이를 한국전력거래소에 판매해 전기판매액의 6.5%인 연간 3500만원(4년간 1억40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또 2011년부터 추진한 탄소배출권사업을 통해 발급받은 외부사업감축량(KOC)을 판매하면 9억여 원의 추가 수익까지 발생해 총 11억원의 이익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매립가스 자원화사업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사항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CDM(청정개발체제)으로 등록, 2011년부터 4년간 국제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총 10만톤의 탄소배출권을 획득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광주시 지분율에 해당하는 52.5%를 판매할 경우 9억원의 시 세외수입 증가가 예상되고 탄소거래시장에서 국내 도시 선도적으로 진출해 탄소배출권거래 시장의 교두보까지 마련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광신대학교 대학원 2016학년도 <후기> 신입생 모집안내**

**전형일정**

① 원서 접수 : 2016. 5. 30(월) ~ 6. 8(수)  
 ② 전형일 : 2016. 6. 10(금)  
 ③ 합격자 발표 : 2016. 6. 14(화)      ④ 등록기간 : 2016. 6. 14(화) ~ 15(수)  
 ※ 참고사항  
 - 서류심사 관계로 제출서류는 기간 내에 등기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해야 한다.  
 - 필기시험 해당학과 : 신학과(Th.M.), 신학과(M.Div.) - 실기시험 : 실용음악학과(M.A.)

**모집학과 및 인원**

대학원	학위과정	모집학과	모집인원
일반대학원	석사	신학과(Th.M.)	○
		유아교육학과(M.Ed.)	○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
음악대학원	석사	실용음악학과(M.A.)	○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혁신로 36 일약문의 ▶ 0621 605-1115, 1024, 1021

**2016학년도 후기 산업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에서 21세기 글로벌 엔지니어 리더에 도전하십시오!!  
 직장인을 위한 야간 강의 실시[주~2회, PM7시~11시]

■ 지역의 산업 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지식 창조 대학원  
 -정규 공학석사 학위과정을 졸업 후 박사과정 진학 가능  
 -학점 이수(30학점)로 석사학위 취득 가능(無 논문제)  
 -본인 업무와 연관된 주제의 학위논문 작성으로 실용적 연구능력 향상과 특허출원 가능  
 -졸업 후 관련분야 연구 및 과제 수행으로 신학관 연구네트워크 구축

■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걸 맞는 알찬 교육프로그램 제공  
 -창의적 공학설계, 공학프로그램 등 혁신적인 교육 과정 시스템 운영  
 -첨단기자재를 활용한 효과적인 학습자 중심의 교육 실시

■ 전형일정

구분	일정
입학원서 작성	2016. 6. 7.(화) ~ 2016. 6. 17.(금) 09:00~18:00
입학원서 접수 (제출서류 포함)	우편 2016. 6. 7.(화) ~ 2016. 6. 17.(금) 09:00~18:00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창구 2016. 6. 7.(화) ~ 2016. 6. 17.(금) 09:00~18:00
전형일시	2016. 6. 28.(화) 10:00~
합격자 발표	2016. 7. 21.(목) 11:00(산업대학원 홈페이지)

■ 모집학과  
 건축공학/기계공학/산업공학/재료공학/전기전자컴퓨터공학/토목공학/화학공학/환경에너지공학/신환경농업학/식품·차산업학/지역환경자원공학

■ 문의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전화] 062-530-1607 [팩스] 062-530-1942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http://gsit.jmu.ac.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GRADUATE SCHOOL OF INDUSTRIAL TECHNOLOGY DONGNAM NATIONAL UNIVERSITY

**2016년 상반기 채용공고**

건해건설(주)에서는 전문건설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신입 직원과 전문성과 정확한 사무처리 능력을 가진 경력직 직원을 채용하고자 합니다.

**1. 모집부문 및 자격요건**

군무예칭지	모집부문	모집인원		경력직 자격요건
		신입사원	경력사원	
본사	공무원	0	0	경력 3년 이상
	재무회계팀	0	0	
현장	광주 세운여수서물터	0	0	경력 무관
	안전관리자	0	0	

**2. 전형절차**

▷ 전형절차  
 1차 : 서류전형  
 2차 : 면접  
 ▷ 제출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주민등록등본,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 우대조건  
 · 건축기사 및 안전관리 자격증 소지자  
 · 시외근무 가능자

**3. 채용조건**

▷ 정규직 채용  
 ▷ 복리후생 : 4대 보험 가입, 시외 근무수당 주유비 별도 지급

**4. 접수기간 및 방법**

▷ 마감일 : 2016년 6월 10일까지  
 ▷ 접수방법 : 홈페이지 채용정보 게시판양식 작성(위야메일 접수 및 우편 접수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인노로 66번길 1, 30호 신원동-외야타워))  
 ▷ 문의사항 : 건해건설(주) T. 062) 574-8501  
 ▷ 홈페이지 : http://www.gunhae.co.kr

건해건설(주)